

# 자신감은 베테랑... 마운드 '겁 없는 신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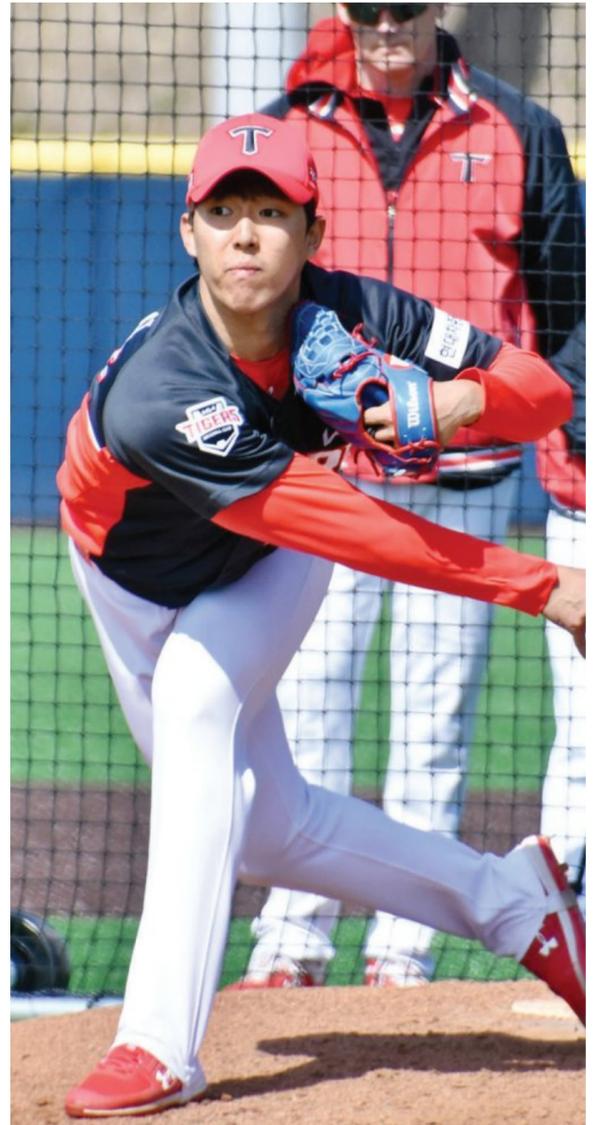


장민기

KIA 이의리·장민기·박건우·이승재·김양수, 생애 첫 캠프 최형우·터커 상대 첫 라이브 피칭 후 "재미 있었다" 소감 추신수 대응 묻자 "흠뻑 맞겠다"...피칭 어땠냐 질문엔 "베리 굿~"

'겁 없는 신'들이 KIA 타이거즈의 마운드를 책임진다. KIA의 스프링캠프에서 눈길이 쏠리는 지점은 마운드다. 확실한 선발 양현종이 빅리그 도전을 위해 떠났고, 마무리 전상현도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마운드 곳곳에 빈틈이 생겼다. 팀에는 위기지만 신예 선수들에게는 기회다. KIA는 이번 캠프 명단에 좌완 이의리·장민기, 우완 박건우·이승재 등 신인 투수 4명의 이름을 올렸다. 2년 차 사이드암 김양수도 처음 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어렵게 박건우가 발목 부상으로 빠지게 됐지만 다른 신예 선수들은 예정된 불펜 피칭과 라이브 피칭을 차근차근 소화하면서 실력을 더하고 있다. 아직 세밀함과 힘이 떨어지지만 '자신감'만큼은 베테랑 못지않다. 장민기는 얼마 전 인터뷰실을 술렁이게 했다. "추신수와 만나게 되면 어떻게 상대하겠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흠뻑 맞고 싶다. 멋있게 날아가면 좋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알아주는 대선배와의 승부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막내'의 패기가 넘치는 대답이었다. 장민기는 2일 합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캠프 첫 라이브 피칭을 소화한 뒤에도 "재미있었다"고 웃었다. 이날 장민기는 팀은 물론 리그에서도 손꼽는 타자 터커-나지완-최형우를 타석에 세워두고 라이브 피칭을 했다. 캠프에서의 첫 라이브 피칭, TV에서만 보던 대선배들을 상대로 하는 피칭만큼 긴장이 될 수도 있었지만 장민기는 "재미있었다. 불펜 피칭보다 훨씬 재미있었다"며 "타자가 서 있으니깐 꼭 잡아서 던질 수 있

어서 더 좋았다"고 언급했다. 재미있게 첫 라이브 훈련을 소화한 장민기는 스스로 70점을 주었다. 장민기는 "포크볼 빼고 다 좋았다. 포크볼을 가장 잘 던지는 데 떨어트리려고 하니가 빠졌다. 직구와 슬라이더는 괜찮았다. 100점 만점에 70점을 주겠다"며 "살살 밀어 넣기 보다는 포수 보고 제일 세게 던지는 것에 신경 썼다. 좋았다. 캠프에서 피칭 중 제일 좋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장민기의 직구 최고 스피드는 141km를 기록했다. 김양수도 자신감에서 장민기에 뒤지지 않는다. 김양수는 지난 28일 라이브 피칭에 나섰다. 김양수는 주눅 들지 않고 라이브 피칭을 완료했다. 움직임이 좋은 직구가 강점인 김양수는 타석에 대기 하고 있던 선배들을 긴장하게 하는 공을 뿌렸다. 공이 손에서 빠져 타석에 있던 김호영의 허벅지에 스치기도 했지만, 김양수는 주눅 들지 않고 라이브 피칭을 완료했다. 첫 라이브 피칭에 대한 평가도 남달랐다. 김양수는 "라이브 피칭 어땠냐?"는 질문에 "한마디로 답해도 됩니까? 베리 굿"이라는 남다른 대답을 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시즌 이미 프로에서의 경험을 쌓은 또 다른 2년 차 정해영의 새로운 시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해영은 2일 두 번째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다. 불펜 피칭 일정을 소화한 뒤 '정교함'을 속세로 언급했던 정해영은 "앞선 피칭 때보다 더 좋았다. 코너워크에 신경 쓰면서 던졌다. 앞으로도 코너워크를 신경 쓰면서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금씩 힘과 정교함을 더해가는 신예들이 자신감까지 더해 기회를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합평=김여울 기자 wool@



김양수



## 변화무쌍 포지션... 훈련은 최형우 처럼

내야수 → 유격수 → 2루수 돌며 훈련도우미 자처 불박이 지명타자에도 포지션 바뀌가며 후배들에 귀감

KIA 타이거즈의 최형우가 스프링캠프에서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다. 최형우는 지난해 처음 글러브를 내려 놓고 지명타자로 변신했다. 시즌 초반 새로운 자리에서 루틴을 갖느라 고심했던 최형우는 시즌이 끝난 뒤에는 지명타자 골든글러브를 품에 안으며 성공적인 변신을 마무리 했다. 올 시즌에도 최형우는 불박이 지명타자다. 확실하게 자신의 자리가 정해졌지만 최형우는 캠프에서 여러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 캠프 초반 내야수조에 편성돼 착실하

게 수비 훈련을 소화한 최형우는 포수 출신다운 포구 실력을 보여주면서 윌리엄스 감독의 머리를 잠시 복잡하게 했다. "다른 마음을 먹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며 웃음을 터트렸던 윌리엄스 감독. 본격적인 라이브 훈련이 시작된 뒤에는 최형우의 무대가 더 넓어졌다. 첫 라이브 훈련이 진행됐던 지난 26일 최형우는 유격수 자리에 서서 부지런히 공을 쫓아다녔다. 당시 합평을 찾은 2일에는 2루수 역할을 담당했다. 포수 김민식의 송구 훈련 도우미로 나서 포구를 담당할 것이다.

한 두 차례 공을 빠트리기는 했지만 부드럽게 공을 낚아채면서 핸들링 실력을 과시했다. 훈련이 끝난 뒤에는 김민식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기도 하면서 '지명타자' 최형우는 바쁘게 움직였다. 멀티플레이어가 된 최형우는 "어차피 수비 나가지는 않는다"며 "다리는 움직여야 한다. 후배들 수비 훈련할 때 가만히 있는 게 민망하기도 해서 여기저기서 움직이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형우는 올 시즌 KIA의 '최고참'이 됐다. 느긋하게 자신의 것만 하기보다는 후배들과 함께하며 선배로서 역할을 하고 싶은 게 최형우의 마음이다. FA 계약에 성공한 그는 팀 타선의 핵심이기도 하다. 지난해 이맘때 KIA는 연습경기 일정에 돌입해서 페이스를 끝

어울렸다. 하지만 올 시즌 KIA는 가장 천천히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최형우도 "예년보다 늦은 페이스다. 아직 감이 부족하다"고 언급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무대다. 예년과 다른 페이스에 내심 불안하기도 하지만 최형우는 윌리엄스 감독의 주문과 계산에 따라 차분하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감이 부족하다고 해도 2일 라이브 훈련 때 합평의 거센 바람을 뚫고 담장 앞까지 공을 보내기도 했다. "파워가 부족했다"고 웃은 최형우와 "밥을 더 먹어라"고 이야기한 윌리엄스 감독. 윌리엄스 감독의 '믿음' 최형우가 그라운드 안팎에서 '멀티 플레이어'를 자처하면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합평=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전인지, 여자골프 세계 랭킹 59위로

2021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개 대회 연속 '톱10' 성적을 낸 전인지(27)가 여자골프 세계 랭킹 59위에 올랐다. 전인지는 2일 발표된 세계 랭킹에서 지난해 61위보다 2계단이 상승한 59위가 됐다. 전인지는 올해 1월 LPGA 투어 개막전으로 열린 다이아몬드 리조트 챔피언스 토너먼트에서 단독 4위에 올랐고, 전날 끝난 시즌 두 번째 대회 게인브리지 LPGA는 공동 8위로 마쳤다. 지난해 말까지 세계 랭킹 62위였던 전인지는 50위권에 진입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 최고 랭킹이 2016년 3위인 전인지는 2020시즌에는 공동 7위 두 차례가 최고 성적이었다. 게인브리지 LPGA에서 우승한 넬리 코르다(미국)가 4위에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고진영(26)과 김세영(28)이 여전히 1, 2위를 유지한 가운데 박인비(33)는 3위에서 4위가 됐다. 9위 김효주(26)까지 한국 선수 4명이 10위 안에 포진했다. 10위였던 박성현(28)은 렉시 토포스(미국)와 자리를 맞바꾸고 11위로 내려갔다. /연합뉴스

## 고진영·김세영 '코르다 자매' 돌풍 잡는다

5일 LPGA 드라이브 챔피언십 출전...올 첫 승 도전

여자 골프 세계랭킹 1, 2위 고진영(26)과 김세영(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미국의 '코르다 자매'와 리턴매치를 벌인다. 고진영과 김세영, 그리고 제시카와 넬리 코르다 자매는 5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오칼라의 골든 오칼라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리는 LPGA투어 드라이브 챔피언십(총상금 150만 달러)에 출전한다. 고진영과 김세영은 지난해 LPGA투어를 휩쓸었지만, 올해 열린 두 차례 대회에서 제시카 코르다-넬리 코르다 자매가 차례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언니 제시카 코르다는 시즌 개막전 다이아몬드 리조트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우승했고, 동생 넬리 코르다는 1일 끝난 게인브리지 LPGA에서 통산 4승 고지에 올랐다. 시즌 개막전에 출전하지 않은 고진영과 김세영은 게인브리지 LPGA에서 4위와 28위에 그쳤다. 한차례 대회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올해도 LPGA투어 1인자 자리를 놓고 경쟁할 고진영과 김세영에게는 코르다 자매의 독주를 지켜볼 수는 없다. 이정은(25), 박성현(28)과 올해 출전



고진영

김세영

한 두 차례 대회에서 모두 톱10에 입상하며 재기를 알린 전인지(27) 등이 힘을 보탠다. 드라이브 챔피언십은 신설 대회다. 지

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대회가 줄어들어 취소되자 LPGA투어가 기금을 모아 두 차례 치른 대회에 드라이브 챔피언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작년에 열렸던 두 차례 드라이브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교포 대니엘 강(미국)과 엘리 유잉(미국)도 출전하지만 디펜딩 챔피언 개념은 아니다. 아직 한 번도 프로 대회를 연 적이 없는 코스는 선수들에게 다소 낯설다. 전장 6852야드로 긴데다 공력이 까다로운 홀이 많다.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과 메모리얼 토너먼트 개최지 뮤어필드 빌리지,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 등을 본떠 조성했다. /연합뉴스